고흥군, '2026년 고흥 유자잎차·분말차 시음회' 개최

유자잎 활용 모색·가공제품 다양화로 부가가치 향상 기대



고흥유자축제 방문객들이 유자잎차를 시음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총 4회에 걸쳐 고흥유자축제와 연계한 '2026년 고흥 유자잎차·분말차 시음회 및 소비자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존 과실 중심의 유자 활용 범위를 잎까지 확대하고 유자잎 가공제품 개발 연구용역의 성과를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품 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한 유자잎차와 분말차 시제품을 선보였다. 소비자들은 유자잎 티백차와 유자잎 분말을 활용해 만든 라떼를 직접 시음한 후 맛과 향, 제품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단순한 시제품 홍보를 넘어 소비자의 선호도와 제품의 보완점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통해 소비자 선호도를 파악하고, 품질 개선과 상품화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했다. /이유빈 기자

보성군, '지리적표시 제1호 보성녹차' 품질 관리 강화

보성군은 지난 16일 봇재홀에서 '2026년 지리적표시 등록 보성녹차 품질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성녹차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는 지리적표시 등록에 참여하는 28개 업체가 우전 22개와 세작 16개 등 총 38개 제품을 출품했다.

차 품평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찻잎의 외형, ▲찻물의 색, ▲향, ▲맛, ▲우려낸 찻잎의 상태 등을 살피는 관능평가를 진행했다. 보성녹차는 2002년 대한민국 농산물 지리적표시 제1호로 등록됐다. 보성군과 보성녹차연합회는 보성녹차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관능평가를 실시해 등록 제품의 품질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보성차의 안전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와 친환경 인증을 지원하고 있다. /김윤성 기자

해남군, 2027년산 마늘·양파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

해남군은 2027년산 마늘·양파 재배농가가 농산물 가격안정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지원금이 차감되는 일이 없도록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이나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경작신고와 의무자조금 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기준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2027년산 마늘 또는 양파를 품목별로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실제 재배면적을 신고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등록·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품목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에 경작신고를 해도 재배면적 신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 /박종옥 기자

진도군 드림스타트, 가족과 함께 가을 추억 만들기

진도군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강원도 춘천과 경기 가평 일원에서 16가정의 아동과 보호자 총 40명을 대상으로 '2026년 드림스타트 가족힐링문화체험'을 운영했다.

이번 체험은 가족이 함께 다양한 문화와 자연 체험을 즐기며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가족 간의 소통을 늘리고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참여 가족들은 '김유정 철길 자전거(레일바이크)'를 타며 철길을 따라 펼쳐진 가을 풍경을 감상하고, 남이섬을 거닐며 형형색색의 단풍을 즐겼다.

이탈리아·프랑스 문화마을을 방문해 이국적인 건축물과 전시 공간을 둘러보며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가영 기자

장흥 장동면, 서울서 향우와 면민 화합의 장 열어

장흥 장동면은 지난 14일 서울특별시 굿모닝시티에서 '재경 장동면민회 정기총회 및 재경 장동서초교 총동문회'가 성황리에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는 장동서초등학교 개교 82주년과 재경장동면민회 정기총회를 함께 기념하는 자리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장동서초교 동문과 장동면 출향 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고향 장흥군 장동면에서도 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30여 명이 상경해 향우들과 고향의 정을 나눴다.

이날 행사에서는 임제수 재경 장동면민회장 겸 재경 장동서초교 총동문회장이 그동안 동문회와 면민회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홍병기 전 동문회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정근 기자

완도군, 25일까지 대표 축제 명칭 선호도 조사 실시

온·오프라인 통해 선정된 10개 후보 중 1개 선택



대표 축제 명칭 선호도 조사 실시 안내 이미지 /완도군 홍보팀 제공

완도군은 기존 '장보고수산물축제'를 완도의 바다와 섬, 수산자원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형 축제로 개편하기 위해 11월 25일까지 대표 축제 명칭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지난 10월 1일부터 16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축제 명칭을 공모했으며, 총 768건의 제안이 접수되는 등 큰 관심을 받았다.

접수된 명칭은 중복·유사성 및 축제 취지와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는 실무 부서 심사를 거쳐 50건으로 압축했으며, 이후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평가단의 서면 심사를 통해 최종 후보 10개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는 ▲완도 바다 섬 페스타 ▲완도 청해 바다 축제 ▲완도 청정바다 축제 ▲완도 섬해진미 대축제 ▲완도 오감 바다 축제 ▲완도 바다 축제 ▲완도 해양 페스타 ▲완도 빙그레 바다 축제 ▲완도 바다와 樂 축제 ▲완도 바다 마실 축제 등이다. 선호도 조사는 새로운 축제 명칭 선정 과정에 군민과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라인은 완도군 누리집의 배너를 통해 네이버 폼에 접속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완도군청 로비와 민원봉사과에 설치된 선호도 조사 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참여 방식은 후보 명칭 10개 중 완도의 지역 특색과 새로운 축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1개를 선택하면 된다. 군은 선호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축제 명칭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가영 기자

